

▪ 타문화권 환자 진료(방글라데시-1편)

KOICA 9기 국제협력의사 심장내과 김동연
현재 영동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강사

다음 글은 방글라데시에서 근무할 때 가끔 적어놓았던 에피소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에피소드 1. 쌍둥이의 죽음

한 아기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한살된 아기를 데리고 왔다. 한달 전에도 열이 나고 먹지 않는다면 아기를 데리고 왔었는데 당시 편도선염으로 생각하여 항생제를 투여하고 호전이 되었었는데 또 열이 나고 먹지 않는다면 데리고 온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아기가 약간 부어있었고 피부에 검은 반점이 군데군데 있는 비특징적인 피부염과 기저기 발진을 동반하고 있었다. 나보다 앞서 진찰한 현지의사는 아연 결핍증을 의심하여 나에게 보낸 것이다.

체온은 39도 였고 편도선은 지난 번에 비해 별로 부어있지 않았다. 폐렴을 의심하여 주의 깊게 청진을 하였는데 괜찮았다. 고막에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아기 엄마는 원래 쌍둥이를 출산하였는데 이 아이의 다른 형제는 몇 달 앓다가 얼마 전에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염려가 되어 아기 엄마는 울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진찰 소견은 지난번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았는데 검은 반점이 섞인 피부염이 마음에 걸렸다. 일단은 경구 항생제, 해열제와 함께 복합비타민을 함께 투여하였다. 엄마가 크게 걱정하고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며 안심을 시켰다. 3일 뒤에 다시 오라는 말과 함께 보내고 집에서 교과서를 들쳐보았다.

교과서를 보니 단백질 결핍증(Kwashiorkor)에 합당한 증상인 것 같았다. 비특징적인 피부염도 교과서의 사진과 비슷한 것 같고 반복적인 감염과 약간 부어있는 모습도 비슷하였다. 젖이 안 나와서 스프 같은 것을 먹이고 있다는 것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3일 뒤에 오면 필요하다면 분유를 사 먹일 돈을 주어야겠다는 생각도 하며 아기가 다시 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아기는 다시 오지 않았다. 보름이 넘어서야 내게 천식으로 치료받던 환자를 통해 그 아기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아기가 일주일 전에 죽었다는 것이다.

어이도 없고, 마음이 아파서 몇분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3일 뒤에 나에게 다시 왔다면 뭔가 조치를 취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았다. 해열제를 먹고 열이 떨어져서 아기를 데려오지 않았던 것일까? 내가 일찍 단백질 결핍증

을 진단하여 분유를 사 먹이도록 했다면 아기가 그렇게 맥없이 죽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자책감도 들었다. ‘하나님, 왜 종의 말이 땅에 떨어지게 하셨습니까?’라며 하나님께 항변을 하기도 했다.

이 나라의 가장 심각한 보건문제는 극심한 가난이다. 가난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치료받지 못한다.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99.9%는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시며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였다. 나를 비롯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에 대해 책임이 있다.

에피소드 2. 약을 먹지 않는 결핵환자

얼마 전에 진료실에 일주일을 외래에 늦게 온 결핵환자가 있었다. 젊은 남자 환자였는데 환자의 말로는 3일 동안 약을 안 먹고 왔다는 것이지만 정말 3일만 안 먹은 것인지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슨 사정이 있었다고는 했지만 공짜로 주는 약을 잘 먹으면 되는 것인데 공짜 약도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려서 벌컥 화가 치밀었다. 환자를 작심을 하고 혼내주어 다시는 약을 빼먹지 못하게 하겠다는 생각에 호되게 애단을 쳤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그만 나가라고 소리를 치며 차트를 던지고 만 것이었다. 아차 싫었는데 환자는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다. 다음 환자를 한명 보고 나서 그 환자를 데려오려고 진료실 밖에 나가 보았지만 그 환자는 벌써 사라진 뒤였다.

마음이 너무나 우울하였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겠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환자들을 돌보겠다던 나는 지금 환자의 인격을 무시하고 내 환자는 내 생각대로 치료되어야 한다는 내 고집에 사로잡혀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사실 치료자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나 내가 주는 약조차도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또 다시 잊고 있었던 것이다. 설사 환자를 잘 치료하겠다는 나의 동기가 선했다고 할지라도 가난한 방글라데시의 한 남자의 인격을 무시할 권리는 내게 없었던 것이었다. 성경을 읽으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며 반석을 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기억이 났다. 내 모습은 그러한 모세와 너무 닮아있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였다. 나의 죄는 먼저 한 인격에 대한 것이지만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다.

일주일째 그 환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그는 내 진료실에 오지 않고 있다. 다시 온다면 무슨 말로 진료를 시작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다. 내 젊은 뱵갈이 실력으로 그 이후 내가 느꼈던 미안한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며칠 뒤 다른 결핵 환자가 두 달 동안 약을 먹지 않고 왔다. 이 환자도 가난해서 그렇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이가 없었다. 그래도 그러면 안되지 하는 마음으로 호흡을 다듬고 약을 먹지 않으면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옮길 수 있다고 경고를 하였다. 또다시 이렇게 하면 치료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으니 다시는 빼먹지 말라고 거듭거듭 주의를 주고 아내를 데려오라고 했다. 가족에게 함께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였다.

진료실에 아내를 데려와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설명하였다. 그래도 아내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서 내 마음도 조금 놓였다.

결핵은 이 나라에서 중요한 사망 원인 중의 하나이다. 일년에 대략 5만 명 정도가 결핵으로 사망한다고 하니 10분에 한명이 결핵으로 사망한다는 것이다. 치료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환자가 성실하게 약을 복용하게 하는 것이다. 협조가 잘 되지 않는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하면서도 완치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 아직도 내게는 더 많은 나의 내면적 변화를 요구하는 어려운 일인 것 같다. 그래도 주님께서 이렇게 고집세고 교만한 나를 아직도 참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도 조금씩 조금씩 그 주님을 닮아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한다.

에피소드 3. 양쪽 폐렴에 걸린 소녀

15세 된 여자아이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나의 작은 진료실에 앉았다. 지난번에 왔을 때 보다 얼굴이 밝아보이고 나를 보고 살짝 웃으며 아는 체를 하는 것을 보니 상당히 호전이 된 것 같아 보였다. 사실 이 아이 때문에 마음을 졸였던 터라 나도 반갑게 맞았다.

처음 진료실에 왔을 때 체온은 40도가 넘는 고열이었다. 청진 상 폐렴이 의심되어 사진을 찍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양쪽 폐에 폐렴이 심하게 관찰되었다. 원래 양쪽 폐에 침범한 폐렴은 상당히 높은 사망률 때문에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다. 큰 병원으로 가볼 것을 아버지에게 권했으나 아버지는 럭샤왈라(인력 거꾼)라서 큰 병원으로 갈 돈이 없다는 거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원래 다른 지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돈을 벌기 위해 우리 병원이 위치한 이

곳 사바(Savar)에 오게 되었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처지였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부자들은 시설이 괜찮은 사설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아예 외국에 나가서 진료를 받지만 대부분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비가 적게 드는 국립병원에 오게 되는 것이다. 고열로 축 늘어진 아이를 보며 내 마음은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즉시 해열제를 주사하고는 병원에 있는 주사용 항생제를 찾아보았다. 함께 파견된 외과 선생님이 몇 가지 항생제를 갖고 있었지만 방글라데시에 만연한 항생제 남용과 폐니실린 내성을 고려할 때 이처럼 심한 폐렴 환자에게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았다. 주사용 항생제를 사가지고 오라고 하면 좋겠는데 내일은 휴일이라 병원이 문을 닫는 날이고 더 육이 한 앰플에 300다카가 넘는 약을 사올 수 있는 처지도 아닌 듯 싶었다.

결국 고민 끝에 경구 복용 시 흡수율이 높고 내성균주에도 효과적인 퀴놀론 제제를 선택하였다. 크게 도움이 안될 것을 알면서도 가지고 있던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제제로 된 항생제를 근육주사를 해주었다. 탈수도 상당히 되어 있어 500밀리리터 짜리 수액도 놓아주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할 환자를 집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약을 처방해 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터였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도 기도부탁을 하고 기도하였다.

휴일이 지나고 다음날 그녀가 다시 왔는데 다행히 열이 떨어지고 전신상태도 많이 호전되었다. 청진 상에서는 아직도 수포음이 많이 들렸지만 그래도 항생제가 효과적이었던 같아 마음이 놓였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내 마음은 큰 기쁨이 가득했다.

“아미 또말 존노 어넥 두스 찐따 꼬레치 - 걱

정 많이 했었단다-

또말 존노 푸로부 이슬께 프락토나 꼬레치-널 위해서 (기독교의) 하나님께 기도했단다”

푸로부 이슬(무슬림의 ‘알라’와 구별되게 기독교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말이 불쾌했던 탓인지 내 발음이 부정확해서인지 아버지는 반응이 없었다. 소녀는 살짝 웃으며 ‘돈노 밭’-감사합니다.-라고 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치료자가 되시며 의사인 나는 다만 그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소녀가 어렵듯이라도 알게 되기를 원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에서 소외되고 가난으로 고통받는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녀 앞에 앉아있는 한 외국인 의사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 그 소녀의 마음 속 깊이 남게 될 날이 오기를 기도한다

에피소드 4. 거대한 농양-방글라데시에서 흔한 당뇨 합병증

오랜만에 진료실 이야기를 쓴다. 한국에서 하던 레지던트 생활에 비해서야 여유가 많은 편인데 그만큼 아이들과 집에서 보내야 할 시간도 많고 요즘 병원에 환자가 많이 늘어서인지 컴퓨터 앞에서 차분히 앉아 글을 쓰기란 쉽지가 않았다. 오늘은 마침 공휴일인데 정윤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정윤이 엄마는 정주를 데리고 구역 예배에 가서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20대 후반의 여자 환자인데 당뇨병을 치료하지 않고 있다가 양쪽 다리에 커다란 농양이 생겨서 내원하였다. 마침 외과의 정 선생이 병 가로 없는 상태였는데 입원시켜서 항생제 치료

를 시작하고 며칠 뒤에 내가 직접 메스를 잡고 고름을 짜고 배농을 위해 튜브를 박아 놓았다. 배농이 되면서 환자의 증상이 많이 좋아졌고 환자와 환자의 남편은 너무나 기뻐하였다. 매일 드레싱을 하면서 환자와 보호자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이제는 퇴원해서 약간 남은 상처를 소독하고 당뇨 조절을 하고 있다. 사실 나는 진료하다가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다. 없는 약을 달라고 졸라대는 환자, 순서를 어기고 먼저 비집고 들어와 먼저 봐달라고 하는 환자, 약을 잘 안 먹고 온 결핵환자들은 어김없이 내게 큰 소리를 들게 된다. 그런데 이 환자의 남편은 드레싱을 하고 있는 나에게 한 국사람들은 화낼 줄을 모르는 것 같다고 나에게 말을 건넨다. 그날도 환자가 너무 많아서 먼저 들어오겠다고 다투는 환자들이 많았는데 나는 그저 드레싱하느라 별 반응을 하지 못한 것이다. 사실 나도 화를 많이 낸다고 말했더니 자기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을 한번도 못 봤다고 한다. 그 말을 듣자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모습으로 보이도록 해주시는 것 같았다.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할 일이다. 며칠 전에 그 환자의 남편에게 벵갈어 사영리를 전해 주었는데 너무 좋은 내용이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도록 몇부 더 자기에게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인격과 믿음으로 내가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지 내 자신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많다. 그러나 그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접할 때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아직도 변하지 않는 고집스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는 순간순간 들을 보면서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된다.